

새 세기 나토를 통한 미국과 유럽동맹의 결탁관계

차 명 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열강들사이의 관계가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에로 넘어간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47페이지)

새 세기 미국과 유럽동맹관계는 저들의 세계지배책동에 유럽동맹을 씌먹으려는 미국의 집요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유럽동맹이 미국—유럽대서양관계의 틀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과 유럽동맹이 결탁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유럽동맹의 결탁관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한 협력관계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나토는 미국의 침략적인 《힘의 정책》에 의한 세계지배전략실현에서 반사회주의군사빨력으로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치적지배수단으로 리용되어왔다.

새 세기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주도밑에 고안되고 현실화된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나토를 통한 결탁관계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나토를 통한 결탁관계는 무엇보다먼저 새 세기에도 계속된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정책집행에서 찾아볼수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를 통하여 유럽동맹을 저들의 효과적인 추종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국은 나토자체를 유럽동맹과 유럽의 전지역을 포괄하는 기구로 확대하며 유럽안보에서 노는 역할을 강화할수 있게 만드는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이에 기초하여 기구의 가입기준에 부합되는 나라들만 성원국으로 될수 있다고 제한하였다.

나토의 가입기준이란 기구의 동방확대에 따른 가입후보국순서에서 《서방의 경계선》을 기초로 하여 세운 기준이다.

《서방의 경계선》이란 곧 랭전의 후파로 생긴 경계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베네룩스나라들(벨지크,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이슬란드, 단마르크, 노르웨이, 뽀르투갈 등 12개의 나토창설성원국들, 튀르키예와 그리스, 당시 서부도이칠란드의 지역과 이전 와르샤와조약기구성원국들이였던 폴스까, 체스꼬, 마쟈르 그리고 새 세기 나토에 새로 가입한 발트해 3개국나라들, 벌가리아, 로므니아, 유고슬리비아련방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된 슬로베니아, 흐르바쯔까를 포괄하고있는 지역들에 제국주의자들이 임의로 그 어놓은 경계이다. 이 경계선은 사실상 카톨릭교와 이슬람교, 동방정교사이에 형성된 력사적인 경계 그리고 동서랭전의 흔적으로서의 경계이다.

미국은 이에 기초하여 유럽을 크게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갈라보았으며 종교적으로는 중앙유럽과 동유럽으로 갈라보았다. 여기에서 미국이 말하는 중앙유럽은 서방그리스도교세계의 한 부분으로 되었던 나라들로서 오스트리아, 마쟈르, 체스꼬, 슬로벤스꼬, 폴스까, 도이칠란드의 동부국경지대의 서쪽을 의미하였으며 동유럽은 대체로 벌가리아와 로므니아 등 흑해연안국들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이런 경계선에 기초한 단계별가입을 통하여 침략적기구로서의 나토의 세력권을 넓혀나갔다.

2001년 1월에 출현한 부쉬2세행정부는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를 저들의 나토전략 실현에서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웠다.

특히 미국은 9.11사건과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을 계기로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2002년 6월 미국은 나토가입을 희망하는 7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트바, 슬로벤스꼬,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로르니아)에 대한 안보자금지출을 승인하는 《2002년 제랄드 비. 에취. 솔로몬 자유강화법안》에 서명하였으며 같은해 11월 브라하에서 진행된 나토 수뇌자회의에서 나토의 동쪽으로의 계속적인 확대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발트해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에 속하는 동유럽 7개국명단이 확인되었다.

나토의 2차확대로 2004년 3월 7개국이 정식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나토성원국수는 19개국부터 26개로, 면적은 1 630만 7 000여km²로, 인구수는 8억 5 030만명으로, 군사비는 5 491억US\$로 늘어났다.

2008년 4월 부쿠레슈티 나토수뇌자회의에서는 흐르바쯔카와 알바니아를 나토성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결정되었으며 다음해인 2009년 4월 3차확대로 두 나라가 정식 가입하였다. 결국 나토의 정성원국은 2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후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이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나토확대를 통하여 미국은 유럽동맹뿐아니라 발트해로부터 흑해를 거쳐 남캅카즈에 이르는 나토의 《아치형》전략적방어지대를 구축하고 나토를 유라시아대륙의 중심깊이로 들어가기 위한 전연지대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불안정지대》로 출동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는 미국의 대유럽동맹전략과 세계전략을 반영한것으로서 커다란 위협성을 내포하고있었다.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는 우선 나토의 세력권, 작전관할권을 현재의 북대서양과 유럽, 북아메리카라는 지역적한계를 벗어나 전세계적범위대로 확대한다는것이다.

나토는 이미 1차확대로 북, 남, 서쪽방면에서 발칸반도를 제외한 동유럽지역으로 전략방어선을 700여km나 내밀었으며 새 세기 2, 3차확대를 통하여 발트해로부터 흑해를 거쳐 남캅카즈에 이르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발을 붙일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나토는 유럽-대서양이라는 지역적범위를 벗어나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에로까지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는 또한 유럽동맹의 확대에 앞서 동유럽나라들을 완전히 틀어쥔다는것이다.

동유럽나라들은 소련붕괴이후 국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혼란이 지속되던 상태에서 나토가입과 같은 커다란 부담을 결머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40여년에 걸치는 오랜 기간 소련식의 전략과 전술, 군전설방식, 장비, 훈련방식을 도입해오다가 그것을 단기간내에 나토식으로 완전히 개조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기때문이었다. 특히 소련제군사장비들가운데서 많은 량을 나토가입을 위한 기준의 요구대로 개조하거나 새로 사들인다는것은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전제로 하였다.

폴스카, 마자르, 체스꼬의 경우 나토가입기준에 도달하자면 100억~130억US\$의 자금이 요구되었고 나토가입을 신청한 12개의 동유럽나라들의 경우에도 나토가입기준에 따라 군대를 개혁하는데만도 약 700억US\$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되었다.

이것은 동유럽나라들이 나토가입을 실현하자면 어차피 미국과 유럽동맹에 손을 내밀어야 하며 궁극에는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에 예속되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나토를 통한 결탁관계는 다음으로 새 세기 유럽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지배권행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나토의 전략작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은 이미 랭전종식직후부터 나토를 보다 새롭게 강화하려는 전략에 따라 1990년 7월 나토의 런던수뇌자회의에서 나토를 군사기구로부터 정치군사기구로 전환할데 대하여, 1991년 11월 나토의 로마수뇌자회의에서 나토가 성원국들사이의 집단방위외에도 유엔이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작전도 단행할데 대하여 결정한바 있다.

미국은 1993년초부터 나토의 《세계화구상》을 제기하면서 나토를 전세계적인 기구로 만드는 그 어떤 시도에도 유럽인들이 돈을 아끼는것은 대서양량안의 안정을 크게 약화시키고 나토의 존재에 손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토가 앞으로 세계에서 유럽동맹과 미국의 리익을 수호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나토의 전략은 옹당 병력의 해외전개에 중점을 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나토의 세계적인 책임》을 제창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유럽동맹과 나토성원국들의 《안전보호 및 리익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실현에 나토를 제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었다.

새 세기 미국과 나토는 나토의 사명을 《위기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세계적관여에로, 대량살륙무기전파, 지역충돌, 민족 및 종교적충돌을 기본안보상 위협으로 보는 《위기반응전략》실현에로 전환하고 나토의 작전범위를 중동, 까스빠해, 동아시아에로 확대하며 나토의 행동권에 대한 유엔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더 매달리였다.

이를 통하여 나토의 명분으로 제멋대로 임의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지역문제,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 간섭하며 세계정치, 안보문제들을 자의대로 처리할것을 추구하였다.

새 세기 미국주도밑에 나토가 《반테로전》,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감행한것도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세계지배책동의 대표적실패로 된다.

새 세기 미국과 나토의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은 2010년 11월 리스본에서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제창된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절정에 달하였다.

회의에서 제창된 2020년까지의 새로운 나토전략은 랭전종식이후 1991년과 1999년에 이어 세번째로 채택된 전략으로서 2010년 5월 이전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를 책임자로 하는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보고서 《나토 2020 : 안전담보 : 적극적인 개입》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전략에서 나토는 나토의 사명을 첫째로, 《유럽대서양지역에 대한 위기관리》로부터 마약밀매, 테로, 싸이버공격, 금융위기, 지구온난화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세계의 안전보장》에로 확대하며 둘째로, 나토성원국들은 아니지만 일본,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민주주의국가》들도 나토의 군사작전에 참가시키도록 하는 한편 중국, 인디아,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나토의 동반자범위를 확대하는것으로 내세웠다.

미국과 나토가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을 제창하게 된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및 재정적부담에서 벗어나며 새 세기에 들어와 급속한 경제장성을 이룩한 중국, 로씨야 등의 신흥경제대국들을 달래여 나토와의 협력에 끌어들이므로써 나토를 세계적인 안보기구로 만들고 주요국제문제처리에서 저들의 무거운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국제안보질서수립을 계속 주도해보려고 한 것과 관련되었다.

미국과 나토의 새로운 전략은 다무적협조의 외피를 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세계 패권전략에 기초한 것으로서 마약밀매, 테로, 사이버공격 등을 구실로 지역 및 해당 나라들에 대한 무력사용과 내정간섭을 로골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을 실현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2012년 5월 나토수뇌자회의에서 미국은 유럽 및 대서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던 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토를 현재와 미래의 안전에 대한 도전들에 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성할 데 대한 《방위력선언》을 채택하였다.

오바마는 나토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모든 성원국들이 군현대화를 다그치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군사작전 등 모든 활동들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나토무력편성과 임무분담에서 전문화,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미국은 테로, 마약, 대량살륙무기전과 등 국제적으로 안보위협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나토성원국별로 특정한 임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전투부대들을 꾸리게 하는 동시에 협동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교육 및 훈련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 나토국방상회의에서 《나토무력 2020》계획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후 동부와 남부지역은 미국이, 북부지역은 도이칠란드가, 서부지역은 이탈리아가 맡아 현지 치안부대들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주도록 임무를 분담하였다.

미국은 나토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무력으로 개편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으로 유럽지역에 안보공백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며 유럽나라들을 나토의 틀거리에 계속 엮어매 놓고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에 써먹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를 통하여 유럽동맹내의 새로운 분열을 조성하고 유럽나라들사이의 리간을 조성하고 동유럽나라들을 저들에게 끌어당기는 수법 등을 통하여 유럽동맹을 약화시키고 저들의 경쟁자를 하나라도 없애는 한편 서로가 경쟁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유럽동맹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끈질긴 지배책동을 유럽동맹성원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대한다면 유럽동맹은 그들자신이 내세운 《다양성에 기초한 통일》, 《독자적인 극》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안보, 외교에서 똑똑한 주권을 세울 수 없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할 때만이 지난 시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